

## 스페인어 교육에서 챗GPT의 적용 가능성

정원석

경희대학교

정원석(2023), 스페인어 교육에서 챗GPT의 적용 가능성,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4(2), 67-98.

**초록**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언어 교육 분야에서 AI 기반 언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를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은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제 2외국어로서 스페인어 전공수업에서 챗GPT(ChatGPT)와 같은 AI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챗GPT를 통한 스페인어 구문 학습에 관한 몇 가지 가정적 상황들을 제시하고 챗GPT가 생성한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챗GPT의 활용에 따른 장단점 및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스페인어 구문 학습에서 챗GPT는 기존의 교실수업에서는 여러 여건상 수행하기 힘든 학습활동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챗GPT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챗GPT가 생성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판별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핵심어** 인공지능, 챗GPT, 정보 정확성, 데이터 신뢰성, 스페인어 교육

## I. 서론

오늘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이거니와 건강관리, 금융, 교통, 여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힘이 되고 있다. AI의 활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는 단연 언어 학습을 꼽을 수 있으며,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발표·토론 중심의 교실수업과 병행하여 교수·학습에 유용한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AI가 가진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생산성을 바탕으로 개별 언어 및 언어 학습의 목표어(target language)의 다양한 구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학습 플랫폼은 언어 습득과 외국어 학습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해법을 학습자에게 보다 접근성 높은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제2외국어로서 스페인어 전공수업에서 챗GPT(ChatGPT)와 같은 AI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챗GPT를 통한 스페인어 구문 학습에 몇 가지 가정적 상황들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챗GPT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챗GPT 활용의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중급 이상 과정의 스페인어 전공수업에서 챗GPT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교실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AI에 대한 현재까지의 발전 및 언어 학습에의 적용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III장은 스페인어 구문 학습의 몇몇 가정적 상황들에 관한 생성형 AI, 즉 챗GPT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챗GPT가 생성하는 정보의 정확도와 데이터의 적정성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IV장에서는 III장에 제시된 챗GPT의 적용 사례들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교육적 활용과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들과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 II. AI와 언어 학습

AI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겠지만, 교육 분야에서 AI의 적용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자연언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통해 언어 학습 및 교육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언어 교육 분야에서 AI 활용은 데이터 기반 피드백을 제공하여 자동화된 수준별 또는 난이도별 시스템의 구축에서부터 수요자 맞춤형 지도방식과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맞게 학습 정보나 방법 등을 제공하는 적응형 학습에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Kulkarni 2019; Holmes *et al.* 2019; Brown *et al.* 2020). 일례로 OpenAI사가 제공하는 챗GPT의 경우 기계학습과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 고안된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구축된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로서 영어를 비롯한 제 2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지능적 수업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수준별 맞춤형 지도, 실시간 피드백, 발음 연습에 관한 음성인식 기술의 적용, 기계번역을 위한 다양한 기계들의 제공, 그리고 학습자의 언어 숙련도와 필요에 맞춘 적응형 학습 플랫폼까지 포함된다.

현재까지 AI에 관해 학계에 보고된 바로는, 언어 교육에서 AI가 가진 장점들로 언급되는 것들은 맞춤형 교육,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과정 등이 있다. AI를 기반으로 한 언어 교육 시스템은 자율적인 언어 연습, 정확한 언어 용법, 그리고 학습 언어권에 대한 문화적 몰입의 과정들을 제공할 수 있다(Lemke 2013; Pugliese 2016). 또한, AI를 활용한 언어 학습의 기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환경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전통적인 교실수업에서의 언어 학습에는 교육 현장의 여러 여건상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 적절한 실시간 피드백, 그리고 정확한 언어 용법에 관한 다양한 언어 자료를 주어진 시간 내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교실수업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AI를 통한 디지털 교육으로 상당 부분 보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언어 교육의 질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은 챗GPT와 같은 AI가 현재의 언어 학습 환경과 교육 방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가이다. 챗GPT의 출현이 언어 학습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축적된 인간의 자연언어에 관한 이론 및 연구결과들을 전적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다(cf. Chomsky *et al.* 2023). 언어습득에 관해 사용기반학습(Usage-based Learning)의 관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챗GPT가 인간의 언어를 완벽히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Bybee 2010; Ellis *et al.* 2013; Dabrowska and Divjak 2015).<sup>1)</sup> 왜냐하면 챗GPT도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 수준의 언어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cf. Cotton *et al.* 2023). 한편, 인간의 언어 습득은 선형적 과정이며 인간의 언어 능력은 타고난 것, 즉 생득설의 관점에서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에 기반을 둔 촘스키(Noam Chomsky) 학파의 학자들은 챗GPT와 같은 AI는 절대 인간의 언어를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습득할 수 없다고 한다(Chomsky 1962; Guasti 2002, 2009; White 2003). 이는 보편문법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언어 습득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은 제 2언어의 습득, 즉 외국어 학습에 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펼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용기반학습의 관점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언어는 패턴과 일반화에 의해 학습되는 것으로 인간은 제 2언어도 모국어 수준으로 충분히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편문법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 언어 적성, 동기 와 같은 외적 요건을 고려해도 절대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계에서는 생득적인 보편 문법의 체계와 규칙 없이도 챗GPT가 빅데이터를 통한 학습으로 언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현 시점에서 챗GPT의 언어 능력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점차 학습을

1) 사용기반학습은 인간의 언어 능력은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규칙의 체계라기보다는 입력 중심의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즉, 인간의 언어 능력은 사용한 언어경험들에서 나오며, 학습자들은 언어경험을 쌓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통해 성인의 언어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한다(cf. Everett 2023). 언어 습득에 관련된 위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에 대한 검토는 챗GPT의 도입으로 인해 점차 변화하는 언어 학습 환경에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챗GPT가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형 생성형 답변이 가능한 언어 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언어 학습에 활용하는데 있어 사용기반학습의 측면들이 좀 더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챗GPT가 보여주는 언어 능력과 확장 가능성은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인간의 언어 능력과 창의성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cf. Borji 2023). 사실 챗GPT로 대표되는 대화형 언어모델의 구동 시스템은 실제 의미를 가진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용빈도가 높은 문자 조합의 연속체, 즉 토큰(token)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챗GPT는 학습을 통해 더 많은 토큰이 저장된 코퍼스에 수록될수록 더 적합한 결과물을 생성한다. 현재 출시된 챗GPT4는 기존 GPT시리즈의 최신 버전으로 1,750억 개의 매개변인을 갖추고 문서요약, 프로그래밍, 보고서 작성 등의 작업에서는 사람 수준의 결과를 생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챗GPT와 같은 AI가 언젠가는 인간의 언어 능력을 초월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설부른 판단이다. 원래 챗GPT 자체는 자연언어 처리를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점차 발전하여 현재에는 초거대 AI가 되어 범용성까지 갖추게 되었다. 물론 기본적으로 챗GPT는 사용자의 질문에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일관성 있는 텍스트와 유용한 정보를 창조한다. 기본적으로 챗GPT는 학습한 거대한 코퍼스 자료 속에서 토큰들의 분포에 관한 일종의 수학적 모델이며, 구동의 핵심은 저장된 코퍼스 자료 속에서 사용자의 질문에 일관된 답변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대하게 축적된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된 현재의 챗GPT 모델 또는 그 이후 출현할 모델들 역시 구동 방식은 필연적으로 실제 언어 데이터가 아닌 토큰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즉, 인간의 자연언어에 관한 이론들과 이를 통한 인간의 생득적 언어 능력에 대한 연구결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챗GPT와 같은 AI는 자발적인 사고가 가능하거나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추지 않는 한 인간의 언어 능력을 절대 뛰어 넘을 수 없다고 예측된다. 물론 챗GPT의 생산성은 인간의 그것에 비해 뛰어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데이터 처리 속도와 같은 점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근거로 챗GPT와 인간의 언어 능력을 직접 비교하여 우월성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챗GPT의 언어 능력과 인간의 언어 능력 간에는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러한 능력이 선천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현재까지 수행된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 언어 유전자(FOXP2)의 발견, 그리고 충분한 언어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도 언어 습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즉 자극 불충분의 문제(poverty of the stimulus) 등과 같은 연구결과들은 인간은 기계적인 학습을 통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언어 능력을 타고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언어습득에 대한 보편문법의 관점을 지지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언어 능력은 최소한의 입력물(input)로도 최대한의 출력물(output)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와는 확연히 차별화된다. 왜냐하면 챗GPT와 같은 AI는 많은 입력물을 통해 학습되는 만큼 출력물이 생산되는 원리로 구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꾸준한 기계학습을 통해 챗GPT의 효용 가치가 더 높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선천적 능력으로 충분한 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학습이 되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챗GPT와는 다르다.<sup>2)</sup> 물론 향후 챗GPT의 능력이 인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미래 사회에 인간과 동일한 인지 능력을 갖춘 AI가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챗GPT는 인간이 가진 인지능력으로서 간주되는 자연언어에 관한 이해와 연구를 위한 언어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언어 또는 개별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는 인간의 몫으로 봐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챗GPT는 인간의 언어

2) 이와 같은 견해는 언어 습득에 관한 인지주의적 관점과는 유사하지만, 행동주의적 관점과는 배치된다(Atkinson 2011).

수행능력, 즉 실제 발화되어 생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대 언어 모델로서, 애초에 자연언어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챗GPT의 언어 능력이 향후 인간의 언어 능력에 비해 월등히 우월할 것이라고는 선불리 예측할 수 없으며, 또한 챗GPT를 통한 자연언어 또는 개별언어의 이해와 연구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챗GPT는 적어도 현 시점까지는 왜 유형론적으로 전혀 다른 언어군에 속한 여러 개별언어들이 몇몇 중요한 언어적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나 개별언어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특성들에 대해 이론적 또는 경험적으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 즉, 주어진 언어 현상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기술할 뿐 왜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까지 제공하지 못한다. 후에 III장의 챗GPT 활용 사례들과 이에 대한 IV장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지만 OpenAI사가 제공하는 챗GPT4는 아직 베타 버전으로 이를 활용한 언어 학습에서 불완전한 결과를 보여주며, 이에 따라 교실수업을 완벽히 대체할만한 언어 교육 시스템으로 평가되기는 힘들다. 물론 챗GPT와 같은 AI를 활용한 언어 학습에서 원어민 발음에 대한 반복적 연습, 동일한 패턴을 가진 구조와 표현의 확장, 원어민 수준의 작문 등과 같은 학습에서 가지는 이점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기존의 교실수업에서는 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부재 등의 교육 여건상의 이유로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기 어려웠던 위 언급한 학습들을 챗GPT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으로 분명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 2외국어 교육에서 챗GPT의 활용 가능성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과 판단은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적어도 언어 교육 분야에서는 챗GPT라는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에 대한 기술적 평가보다 이를 실제 적용해봄으로써 챗GPT가 생성하는 답변의 정확성과 데이터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언어 교육에서 챗GPT의 유용성 역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제 2외국어 스페인어 교육에서 챗GPT4의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인 몇몇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III. 스페인어 교육에서 챗GPT4의 가정적 적용 사례

우선 본 연구를 통해 스페인어 교육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챗GPT4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선불리 챗GPT4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느 쪽으로 단정 지어 평가를 내릴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례연구를 통해 스페인어 교육에서 챗GPT4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 연구로서 의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중급 이상의 스페인어 실력을 갖춘 한국인 학습자들이 스페인어의 구문적 특성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챗GPT4를 활용한 사례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학습자들이 오류를 많이 범하거나 교육현장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다음과 같은 언어적 측면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명사구와 관련하여 한국어와는 의미 해석상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현상들인 스페인어의 영주어(null subjects)와 후치주어(postverbal subjects), 명사 생략(nominal ellipsis), 그리고 접어 좌향 전위(Clitic Left Dislocation) 구문의 특성들에 대해 챗GPT4의 활용을 통해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1-3절 내용들은 챗GPT4와의 문답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본고의 분석이 추가되어 있다.

#### 1. 영주어와 후치주어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유형론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외형상 유사한 현상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두 언어 모두 시제절에서 영주어를 허용한다는 점이 흔히 언급되는 공통적인 특성이다. 다음은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영주어 현상에 대한 챗GPT4와의 문답 결과이다.<sup>3)4)</sup>

3) 챗GPT는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했느냐에 따라 생성하는 내용의 질에 영향을 주며, 챗GPT의 답변은 질문과 프롬프트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f. Huang *et al.* 2022, Kohnke, 2022). 현재의 챗GPT4는 한국어에 비해 영어로 학습한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챗GPT4와의 문답은 모두 영어로 수행하였다.

- (1) Q: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Spanish with respect to null subjects?

ChatGPT4:

Korean and Spanish differ in their treatment of null subjects. Here are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these languages regarding null subjects:

1. Pro-drop Parameter: Spanish is considered a pro-drop language, which means that subject pronouns can be omitted when the subject is clear from context or can be inferred. In contrast, Korean is not a pro-drop language, and subject pronouns are typically obligatory. In Korean, it is uncommon to omit subject pronouns, and their presence is usually required for grammaticality.
2. Verb Agreement: Spanish has rich verb agreement morphology, where the verb form reflects the person and number of the subject. This allows Spanish to have null subjects while still conveying subject information through verb conjugation. In Korean, verb agreement is not as prominent. Korean verbs do not change their forms based on the subject, so subject pronouns are more necessary for grammatical clarity.
3. Syntax and Word Order: The word order in Korean and Spanish also differs, which affects the use of null subjects. Spanish generally follows a subject-verb-object (SVO) word order, while Korean has a subject-object-verb (SOV) word order. In Korean, the subject is often marked with a postposition, making it more salient and less likely to be omitted compared to Spanish, where the subject is often unmarked.
4. Pragmatic Factors: Pragmatic considerations may influence the use of

- 
- 4) 한 심사자는 스페인어 시제절에서 주어 가 출현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국내 교육현장에서는 영주어와 같은 언어학적 용어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1)에 제시한 질문의 형식은 주어 생략(omitting subjects)과 같은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비록 영주어는 언어학적 용어이지만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의 제 2외국어 스페인어 학습에서는 영주어와 주어 생략 이 두 용어는 별다른 차이 없이 동일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여 (1)의 질문을 유지하기로 한다. 또한,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본고는 단순히 교양이 아닌 전공으로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스페인어 구문의 이해를 위한 챗GPT4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하며, 학습자들이 다른 전공 교과목들을 통해 영주어와 같은 언어학적 용어에 대한 어느 정도 친숙함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null subjects differently in Korean and Spanish. In Spanish, null subjects are commonly used in everyday conversation, allowing speakers to drop pronouns when the subject is evident. In Korean, the use of null subjects is less common, and explicit subject pronouns are generally preferred to avoid ambiguity.

5. Dialectal Variation: Both Korean and Spanish exhibit dialectal variation in their treatment of null subjects. Regional variations within each language may affect the frequency and acceptability of null subjects. For example, in certain Spanish dialects, such as Rioplatense Spanish, null subjects are more prevalent than in others. Similarly, different Korean dialects may vary in their use of null subjects.

These differences demonstrate how the null subject phenomenon is shaped by the grammatical and syntactic properties of each language, as well as cultural and pragmatic factors that influence language use.

제 2외국어 스페인어 교육에서 위와 같은 영주어 관련 문답은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유사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한국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페인어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언어 현상을 이해하고 학습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위 2번 항목의 기술 내용은 한국어와 스페인어에서 영주어의 인허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한국어와 달리 스페인어는 인칭에 따른 동사의 굴절형을 통해 영주어를 인허한다고 알려져 있다(Jaeggli and Safir 1989). 또한, 4-5번 항목들은 스페인어의 영주어 현상에는 동사의 풍부한 굴절형뿐만 아니라 어순, 화용적 요인, 그리고 지역적 차이와 같은 측면들 역시 고려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즉, 영주어보다는 외현주어가 훨씬 더 적절한 문맥이 존재하며 지역별로 영주어의 사용 빈도가 다를 수 있다는 변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스페인어의 구문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제 2언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히는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위 (1)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 판단에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위 1번과 3번의 항목들은 잘못되거나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답변

의 1번 항목에서 “[...] Korean is not a pro-drop language, and subject pronouns are typically obligatory. In Korean, it is uncommon to omit subject pronouns, and their presence is usually required for grammaticality”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도 영주어의 사용은 전혀 드문 것이 아니며, 또한 주어의 사용이 일반적으로 문장의 문법성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일본어 같이 동사의 굴절형이 빈약한 언어들 역시 적절한 담화 문맥 하에 영주어 또는 영목적어의 사용을 허용한다.<sup>5)</sup> 또한, 3번 항목 자체는 스페인어의 영주어 현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영어와 프랑스어는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SVO 언어군에 속하지만 영주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기본 어순 자체는 영주어 현상과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챗GPT4에 재질문하였다.

(2) Q: So Korean cannot allow null subjects?

ChatGPT4:

While it is generally less common to omit subjects in Korean compared to Spanish, it is not entirely accurate to say that Korean cannot omit subjects. While subject pronouns are typically obligatory in Korean for grammaticality, there are some cases where subjects can be omitted:

1. Contextual Understanding: If the subject can be easily inferred from the context or if it is already established in the discourse, Korean speakers may omit the subject. This is more likely to occur in informal or conversational settings.

---

5) 아래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i) A: 너 집에 왔니?  
B: 응, (나) 방금 왔어.
- (ii) A: 책 샀니?  
B: 응, (책) 샀어.

이는 일본어와 중국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들 동아시아어의 동사에는 풍부한 굴절이 관찰되지 않는다(Huang 1984; Saito 2007).

2. Imperatives: In imperative sentences, the subject is often omitted in Korean. The verb form itself conveys that the subject is second person (you) or is intended as a general instruction, allowing the subject to be left implicit.
3. Pro-Drop in Certain Clauses: In certain subordinate clauses or embedded structures, subject pronouns can be omitted in Korean. This includes clauses such as relative clauses or complement clauses, where the subject can be understood from the main clause or context.
4. Ellipsis: In cases of ellipsis, where a previously mentioned subject is repeated, Korean speakers may choose to omit the subject to avoid redundancy. This is similar to instances of pro-drop in other languages.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general tendency in Korean is to include the subject pronoun for clarity, especially in formal or written contexts. However, in specific situations and certain linguistic environments, the omission of subjects can occur in Korean, albeit with less frequency compared to languages like Spanish.

이번 답변 결과에서는 한국어의 영주어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보완되어 있다. 물론 챗GPT4가 생성하는 부정확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답변 내용과 데이터를 학습자 스스로 정확도와 적정성 측면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앞서 살펴봤듯이, 챗GPT4가 제공하는 정보는 피상적일 수 있으며, 또한 모두 다 정확한 것도 아니다. 챗GPT4와 같은 AI는 주어진 데이터나 맥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Hallucination)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OpenAI사는 다단계 추론 과정에서 생성하는 최종 답변에 대한 보상 대신 각각의 추론 단계에서 개별 답변을 보상하는 훈련을 통해 챗GPT4의 환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챗GPT4를 활용한 수업에서 교수자의 적절한 개입과 역할이 분명 필요하며 교수자는 챗GPT4가 제시한 정보의 정확성 검토를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질문하도록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위 (1-2)의 내용과 관련하여 교수자는 스페인어에서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담화 환경과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설명을 제공하거나 챗GPT4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자, 교수자, 그리고 챗GPT4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챗GPT4가 생성한 데이터를 스스로 판단하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어와 달리 스페인어는 동사 뒤에 주어(Subject)를 허용한다. 시제절에서 후치주어가 가능한 점은 로망스어계 영주어 언어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Rizzi 1982; Jaeggli and Safir 1989; Fernández-Soriano 1993). 후치주어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둔 학습자들에게 목표어인 스페인어의 후치주어에 대한 이해와 학습은 중급 이상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은 스페인어의 후치주어에 대한 챗GPT4와의 문답 결과이다.

(3) Q: How does Spanish allow postverbal subjects?

ChatGPT4:

Spanish is a pro-drop language, which means that subject pronouns can be omitted when the subject is already clear from the context. In some cases, this omission of the subject pronoun can lead to a postverbal subject, where the subject appears after the verb in the sentence.

There are several situations in which Spanish allows for postverbal subjects:

1. Verb emphasis: When the speaker wants to emphasize the action or the verb itself, they may place the verb at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and follow it with the subject. For example:

“Corro yo” (I run) instead of “Yo corro.”

2. Contrast or clarification: When contrasting or clarifying information is provided, the subject can be placed after the verb to highlight the new information. For example:

“Pedro lo hizo, Juan no lo hizo” (Pedro did it, Juan didn’t do it) instead of “Pedro lo hizo, Juan no hizo.”

3. Existential sentences: In existential sentences where the subject is indefinite or unknown, the subject can be placed after the verb. For example:

“Hay un problema” (There is a problem) instead of “Un problema hay”

4. Interrogative sentences: In certain types of questions, the subject can be placed after the verb for stylistic reasons or to create a contrast. For example:

“¿Vienes tú?” (Are you coming?) instead of “¿Tú vienes?”

It's important to note that while postverbal subjects are allowed in Spanish, they are not mandatory or common in everyday speech. The default word order in Spanish is subject-verb-object (SVO), but due to the flexibility of word order and the pro-drop nature of the language, postverbal subjects can be used for specific purposes as mentioned above.

위 1-3번 항목들은 스페인어에서 후치주어가 어떻게 상황별로 사용되는지를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제시된 몇몇 예문들은 관련 내용을 학습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면, 위의 챗GPT4의 답변 내용에 부합하려면 2번 항목에 대한 예시로는 *Pedro lo hizo, Juan no lo hizo*가 아닌 *lo hizo Pedro, no lo hizo Juan*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3번 항목의 존재구문(existential constructions)에 대한 예시 역시 *hay* 동사 뒤 *un problema*는 후치주어가 아닌 직접 목적어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는 *hay un problema*가 *lo hay*와 같이 직접 목적 대명사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위 (3)에 제시된 내용에 스페인어에서 후치주어가 출현 가능한 모든 문맥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 교수자는 학습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챗GPT4를 통한 문답 결과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의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조금 더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는 스페인어의 후치주어에 관한 챗GPT4와의 추가 문답 결과이다.

(4) Q: Are there more cases of postverbal subjects in Spanish?

ChatGPT4:

Yes, there are a few more cases in which Spanish allows for postverbal subjects. Here are a few additional examples:

1. Imperative sentences: In imperative sentences, where the speaker is giving a command or instruction, the subject pronoun is often omitted, resulting in a postverbal subject. For example:

“Come tú” (You eat) instead of “Tú come.”

2. Exclamatory sentences: In exclamatory sentences, when expressing surprise, admiration, or any strong emotion, the subject can be placed after the verb. For example:

“¡Qué lindo está el paisaje!” (How beautiful the landscape is!) instead of “¡El paisaje está qué lindo!”

3. Conditional sentences: In conditional sentences, especially those using the conditional tense, the subject can be placed after the verb for emphasis or stylistic purposes. For example:

“Siempre lo haría ella” (She would always do it) instead of “Ella siempre lo haría.”

4. Relative clauses: In relative clauses, the subject can appear after the verb when providing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subject. For example:

“El libro que está en la mesa, lo compré yo” (The book that is on the table, I bought it) instead of “Yo compré el libro que está en la mesa.”

It’s worth noting that while postverbal subjects are grammatically correct in these contexts, they are generally less common in everyday speech compared to the more typical subject-verb-object (SVO) word order in Spanish.

위 2-4번 항목들은 감탄문, 강조 또는 문체적 도치(stylistic inversion), 그리고 관계절에서도 후치주어가 관찰될 수 있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답변 결과에서도 마지막에 제시된 정보, 즉 스페인어에서 후치주어가 전치주어보다 유표적(marked)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비록 영어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어는 전형적인 SVO 언어이지만 어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후치주어는 전치주어만큼 빈번하게 사용된다. 일부 문맥에서는 오히려 후치주어가 전치주어보다 무표적(unmarked)인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venir*, *llegar*와 같은 스페인어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verbs)의 주어는 동사를 선행하거나 후행할 수 있지만, *¿Quién vino?*와 같은 의문문에 대한 자연스러운 답변은 *Juan vino*가 아니라 *vino Juan*의 후치주어를 포함한 어순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영어나 한국어와는 달리 스페인어의 어순은 정보 구조에 민감하기 때문이다(Zubizarreta 1998; Olarrea 2012). 따라서 이 부분에서 교수자는 스페인어 비대격 동사의 특성과 더불어 정보 구조적 관점에서 후치주어가 포함된 문장의 어순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챗GPT4가 제시한 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 즉, 스페인어가 가진 언어적 특성에 대한 챗GPT4의 초기 답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스페인어의 어순과 관련된 질문들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한정된 시간의 교실수업에서는 후치주어를 포함한 예문들을 교수자의 준비로만 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챗GPT4의 생산성은 인간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챗GPT4를 활용하는 학습자들은 스페인어의 후치주어에 대한 적절한 예시를 원하는 만큼 제공받을 수 있다.

(5) Q: Could you provide me 10 examples of postverbal subjects in Spanish?

ChatGPT4:

Certainly! Here are ten examples of sentences with postverbal subjects in Spanish:

- “Mañana llegan los invitados.” (Tomorrow the guests arrive.)
- “En la cocina están las llaves.” (In the kitchen, the keys are.)
- “Después de la tormenta salió el sol.” (After the storm, the sun came out.)
- “Por la ventana entró un gato.” (A cat entered through the window.)
- “Aquí viene María.” (Here comes María.)
- “En el concierto tocaron Los Beatles.” (At the concert, The Beatles played.)
- “Al trabajo llega puntualmente el director.” (The director arrives punctually to work.)
- “Bajo la cama se escondió el perro.” (The dog hid under the bed.)
- “Ayer apareció un artículo interesante.” (Yesterday an interesting article appeared.)
- “Al final del libro están las respuestas.” (At the end of the book, the answers are.)

These examples demonstrate the flexibility of Spanish word order, allowing for the subject to appear after the verb in various contexts.

챗GPT4가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유사 예문들을 접함으로써 학습자들은 후치주어가 포함된 구문들에 점차 익숙해 질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도출해내는 활동으로 연습문제나 수업 내 활동으로 연계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스페인어의 VS/VOS/VSO 어순에 포함된 강조 또는 문체적 도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sup>6)</sup>

## 2. 명사 생략

모국어인 한국어와 비교하여 목표어 스페인어가 가진 또 다른 언어적 특성으로는 명사 생략이 널리 관찰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명사 생략은 다른 종류의 생략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반복되거나 잉여적인 표현을 발화하지 않음으로써 언어의 경제성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자연언어의 주요 특성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van Craenenbroeck and Temmerman 2018). 물론 명사 생략은 스

---

6) 제시된 자료들은 모두 동사 앞에 부사어구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스페인어에서는 후치주어의 출현이 위와 같은 외형상 시제동사가 항상 문장 내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V2 어순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페인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영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들에서도 관찰된다 (Lobeck 2006; Eguren 2010; Saab 2019).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어에서 명사 생략은 극히 제약적이며, 스페인어 또는 영어의 명사 생략과 동일한 분포와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Park 2016, 2021). 예를 들어 스페인어에서는 명사 생략이 구어뿐만 아니라 문어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주로 구어에서 일부 명사 생략의 사례들이 관찰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챗GPT4를 통해 스페인어의 명사 생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학습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아래 챗GPT4와의 문답 결과를 살펴보자.

(6) Q: What is nominal ellipsis observed in Spanish?

ChatGPT4:

Nominal ellipsis, also known as noun phrase ellipsis or NPE, is a syntactic phenomenon observed in various languages, including Spanish. It refers to the omission or ellipsis of a noun or noun phrase when i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text.

In Spanish, nominal ellipsis occurs when a noun or a noun phrase is omitted but can be understood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sentence or the preceding discourse. The ellipsis typically occurs when the noun or noun phrase has been mentioned earlier in the conversation or when it is redundant or predictable.

Here's an example of nominal ellipsis in Spanish:

Example 1:

Person A: ¿Quieres una manzana?

Person B: No, gracias. Prefiero las peras.

Translation:

Person A: Do you want an apple?

Person B: No, thanks. I prefer pears.

In the response of Person B, the noun “peras” (pears) is omitted but understood based on the context. The noun phrase “las peras” (the pears) has been mentioned earlier in the conversation, so it can be elided in the response.

Nominal ellipsis is a common feature of natural language, including Spanish, and it helps to avoid repetition and make the conversation more fluent. It relies on shared knowledge and context to fill in the missing information.

비록 챗GPT4의 답변에서 명사 생략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설명은 적절해 보이지만, 그 아래 스페인어와 영어 예시문들에서는 명사 생략을 전혀 관찰되지 않으며 답변의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생성된 정보와 데이터의 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7) Q: But the example is incorrect, as the response B contains las peras!

ChatGPT4:

Apologies for the mistake in the example provided. You are correct. Here’s a corrected example illustrating nominal ellipsis in Spanish:

Example:

Person A: Tengo dos libros.

Person B: Yo también.

Translation:

Person A: I have two books.

Person B: Me too.

In Person B’s response, the noun “libros” (books) is omitted but understood from the context. The response implies “Yo también tengo dos libros” (I also have two books), but the noun phrase “dos libros” is elided for brevity and because it is already mentioned in the previous statement.

Nominal ellipsis is a common phenomenon in Spanish and other languages, where redundant or predictable information can be omitted when the context allows for its understanding.

그러나 이번 답변 결과 역시 명사 생략에 대한 적절한 예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yo también*과 같은 긍정동의 표현은 명사 생략의 일례로 간주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문장에서 *yo también*은 의미적으로 *yo también tengo dos libros*와 동일하게 해석되며,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에서는 *yo también*이 절 생략(clausal ellipsis)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Depiante 2000; Saab 2008).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면, 실제 (7)에는 스페인어의 명사 생략에 적절한 예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8) Q: Could you provide me 10 examples of ellipsis of noun phrases in Spanish?

ChatGPT4:

Certainly! Here are 10 examples of ellipsis of noun phrases in Spanish:

Compré dos camisetas, pero solo necesito una.

Juan tiene tres hermanos, y yo, dos.

¿Quieres café o té? Prefiero el primero.

Marta estudia francés; yo, italiano.

La casa es grande, pero el jardín pequeño.

Compré una blusa amarilla, pero no me queda bien.

El perro es mío; el gato, de mi hermana.

No puedo encontrar mis llaves; tú, ¿las viste?

Vivo en una casa antigua; mis padres, en un apartamento moderno.

Ellos hablan inglés; nosotros, español.

In these examples, the noun phrases have been omitted bu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text or have been mentioned before.

These examples illustrate instances of nominal ellipsis in Spanish where the noun or noun phrase is omitted bu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text. Nominal ellipsis helps to make the conversation more efficient by omitting redundant or predictable information.

하지만 예문의 정확성에 있어 여전히 답변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비록 제시된 몇몇 예문들은 스페인어에서 전형적인 명사 생략으로 간주되는 *a mí me*

*gustan los cuentos de Borges, pero a tí te gustan los de Cortázar*와 같은 예시를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ellos hablan inglés; nosotros, español*과 같은 예문에는 명사 생략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절 생략이 포함된 공백화(gapping)의 예로서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이다.<sup>7)</sup> 또한, 제시된 예문들 중 *no puedo encontrar mis llaves; tú, ¿las viste?*에서는 직접 목적어인 *mis llaves*를 *las*로 대명사화한 것을 보여줄 뿐이다.<sup>8)</sup> 따라서 이러한 예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명사 생략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챗GPT4가 생성하는 정보와 데이터의 오류는 선행학습을 통해 스페인어의 생략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쉽게 판별하기 힘들다. 따라서 여기서도 교수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교수자는 챗GPT4가 생성한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 예문의 적정성에 대한 감별을 통해 학습자에게 수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접어 좌향 외치

마지막으로 명사구와 관련하여 한국인 학습자들이 주목해야 할 스페인어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으로는 접어 중복(clitic doubling)을 통한 좌향 외치가 있다.<sup>9)</sup> 스페인어의 목적 대명사는 접어의 형태로 출현하며, 현대 스페인어의 시제절에서는 반드시 동사 앞에 위치한다. 접어 대명사에 대한 이해는 초급 단계부터 스페인어 학습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접어를 포함한 구문들의 활용 역

7) 명사 생략과 공백화는 생략부의 앞뒤로 두 개 이상의 잔여물(remnant)을 남긴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생략되는 범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백화는 명사 생략의 일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8) 스페인어 접어 대명사를 명사 생략에 따른 소위 접어 중복(clitic doubling)의 결과로 분석할 수도 있다(cf. Hualde et al. 2012). 이와 같은 분석 가능성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9) 한 심사자가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용어들 역시 국내 스페인어 교육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본고는 중급 이상의 스페인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챗GPT의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교육학적 관점에서 주어진 현상을 기술하는 마땅한 대체 용어를 찾기 어려운 관계로 접어 중복, 좌향 외치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질문을 구성하기로 한다.

시 중급 이상의 학습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접어 중복이 반드시 필요한 몇몇 구문들은 구어 및 문어에서 빈번히 사용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학습은 상황과 문맥에 맞는 표현의 구사와 직결된다. 스페인어의 접어 좌향 외치 구문은 영어나 한국어의 주제화(topicalization) 구문과 유사하며, 문두에 도치된 명사구는 주제로 분석된다(Zubizarreta 1998; Zagona 2002; Casielles-Suárez 2004). 즉, 접어 좌향 외치는 스페인어에서 주제화 구문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간주된다(Arregi 2003). 이와 같은 스페인어의 접어 좌향 외치에 대한 ChatGPT4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9) Q: what is clitic left dislocation in Spanish?

ChatGPT4:

Clitic Left Dislocation (CLLD), also known as “Dislocación a la Izquierda con Clítico” in Spanish, is a syntactic phenomenon commonly observed in Spanish. It involves the movement of a pronominal clitic (such as pronouns “lo,” “la,” “le,” etc.) to the left periphery of a sentence, creating a discontinuity between the clitic and its verb phrase.

In CLLD, the pronominal clitic is placed before the verb, typically at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and is followed by a pause (comma) to indicate the dislocation. This construction serves to highlight or topicalize the clitic, placing it in a prominent position for emphasis or contrast.

Here’s an example of CLLD in Spanish:

Original sentence: “La película, la vi ayer.” (I saw the movie yesterday.)

CLLD construction: “La vi, la película, ayer.” (I saw it, the movie, yesterday.)

In this example, the pronominal clitic “la” (it) is dislocated to the left, appearing before the verb “vi” (saw). The comma indicates the pause or dislocation. The object “la película” (the movie) follows the verb.

CLLD is commonly used for information focus or contrast, and it allows for a more flexible word order in Spanish sentences. By placing the clitic

at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it draws attention to the pronominal element and can convey specific discourse functions or pragmatic effects.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스페인어의 접어 좌향 외치에 관한 적절한 설명인지는 의심스럽다. 우선 접어 좌향 외치의 예시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위의 기술된 내용과 달리 일반적으로 *la vi, la película, ayer*가 아닌 *la película, la vi ayer*가 접어 좌향 외치의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되며, 이 경우 목적이 명사가 좌향 외치될 경우 해당 명사와 성수 일치하는 접어 대명사의 출현이 필수적이다.<sup>10)</sup> 즉, 무조건 접어가 문두에 출현하는 것만으로는 접어 좌향 외치 구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lo vimos en el cine*와 같은 문장은 접어 좌향 외치가 아닌 단순히 접어 대명사가 포함된 것일 뿐이다. 물론 위 (9)의 내용 중 접어 좌향 외치의 출현 환경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즉, 정보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좌향 외치 구문이 강조나 대조의 문맥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정보이다(López 2009). 아래는 (9)에 제시된 예시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la película, la vi ayer*와 유사한 예시의 제공에 관한 챗GPT4의 답변이다.

(10) Q: Could you provide me examples of Clitic Left Dislocation similar to “La película, la vi ayer.”?

ChatGPT4:

Certainly! Here are some examples of Clitic Left Dislocation (CLLD) in Spanish similar to “La película, la vi ayer.”:

La tarea, la terminé esta mañana.

El libro, lo encontré en la biblioteca.

La comida, la preparé con mucho cariño.

10) 엄밀히 말하면 *la vi, la película, ayer*는 접어 우향 외치(Clitic right dislocation)의 예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카탈루냐와 발렌시아 지역의 스페인어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관찰된다(Villalba 2011). 카탈루냐어와 발렌시아어에는 이와 같은 구문이 널리 사용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스페인어에서 접어 우향 외치가 빈번히 관찰되는 것은 언어 접촉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Perpiñán 2018).

El concierto, lo disfruté enormemente.  
 La casa, la compramos el año pasado.  
 El examen, lo pasé con éxito.  
 La fiesta, la celebramos en mi casa.  
 El coche, lo vendimos la semana pasada.  
 La canción, la escuché en la radio.  
 El regalo, lo envolví con papel dorado.

These sentences demonstrate CLLD in Spanish by placing the noun phrase at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followed by a comma, and then continuing with the verb and the rest of the sentence.

앞서 3.1과 3.2에서 살펴본 것과 달리 (10)의 답변에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현상에 부합하는 적절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언급할 점은 위 제시된 모든 예문들은 영주어를 포함한 경우이며, 외현 주어들을 포함한 예시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스페인어의 접어 좌향 외치구문에서는 주어-동사 도치(subject-verb inversion)가 의무적이지 않지만, 평서문에서도 강조 또는 문체적 이유로 인한 주어-동사 도치가 빈번하게 관찰되기 때문이다(Corr 2016; Leonetti 2017).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추가하였다.

(11) Q: Is subject-verb inversion required in clitic left dislocation in Spanish?

ChatGPT4:

No, subject-verb inversion is not required in clitic left dislocation (CLLD) in Spanish. In CLLD, the clitic pronoun is placed at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followed by a comma, to establish topic continuity. The subject and verb order remains the same as in a regular sentence. Here's an example to illustrate this:

Regular Sentence: Juan compró el libro. (Juan bought the book.)

CLLD Sentence: El libro, Juan lo compró. (The book, Juan bought it.)

As you can see, the subject-verb order remains the same in both the

regular sentence and the CLLD construction. The only difference is the placement of the clitic pronoun at the beginning of the CLLD sentence.

(12) Q: So “El libro, lo compró Juan” is ungrammatical, as opposed to “El libro, Juan lo compró”?

ChatGPT:

Yes, you are correct. In Spanish, the typical order in a clitic left dislocation (CLLD) construction is to place the clitic pronoun before the verb. Therefore, “El libro, lo compró Juan” would be considered ungrammatical, while “El libro, Juan lo compró” is the correct form.

The placement of the clitic pronoun before the verb is a common characteristic of CLLD in Spanish, where the clitic pronoun is fronted for emphasis or to establish topic continuity. The subject-verb order in the main clause remains the same as in a regular sentence.

위 결과들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11)과 달리 (12)의 설명에는 거짓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스페인어의 접어 좌향 외치 구문에서는 주어-동사 도치가 의무적이지 않을 뿐 선택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주어-동사 도치가 포함된 문장 역시 전혀 비문이 아니다. 이를 고려하여 재질문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13) Q: But “El libro, lo compró Juan” is also acceptable, just as “El libro, Juan lo compró” is!

ChatGPT4:

Apologies for the confusion in my previous response. You are correct. Both “El libro, lo compró Juan” and “El libro, Juan lo compró” are grammatically acceptable in Spanish.

In clitic left dislocation (CLLD), the placement of the clitic pronoun before or after the verb can vary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emphasis, style, or personal preference. Both word orders are valid and commonly used in Spanish CLLD constructions:

El libro, lo compró Juan.

El libro, Juan lo compró.

Both of these sentences convey the same meaning: “Juan bought the book.” The CLLD construction allows the clitic pronoun “lo” to be placed before or after the verb “compró” while maintaining the topic continuity established by the dislocated noun phrase “El libro” (The book).

Thank you for pointing out the error, and I apologize for any confusion caused.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챗GPT4와의 일련의 문답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스페인어의 접어 좌향 외치 구문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위 언급한 문답들을 통해 접어 좌향 외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는 없지만, 학습자들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추가한다면 접어 좌향 외치 구문에 적용되는 제약들과 한국어 및 영어와의 비교를 다양한 예시와 함께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수자와 학습자로 중심의 기존 교실수업에 비해 챗GPT4의 활용을 통한 디지털 수업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될 수 있다.

#### IV. 시사점과 한계

기존의 제 2외국어 학습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보완적 피드백만으로는 교실수업에서 상세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 즉, 목표어의 언어적 특성과 고유한 언어 현상에 대한 이해와 모국어와의 적절한 비교 및 대조 등은 챗GPT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어렵지 않게 실현 가능하다. 제 2외국어 학습에서는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주요 패턴들과 일반화를 통한 반복 학습의 과정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실제 예문들을 통해 가상 환경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실수업에서 학습한 내용들 역시 챗GPT를 통한 문답으로 적절한 담화 상황과 문맥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챗GPT4와의 문답 결과는 사용자가 어떠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얼마나 일련의 질문들을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교실수업에서 챗GPT4의 활용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평가되며, 교수자의 개입과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챗GPT4의 답변에 포함된 오류를 통해 볼 때 언어 학습에서 챗GPT4의 활용 가능성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구성한 질문들 중 일부는 언어학적 용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교육에서의 챗GPT4의 활용에 대한 분석 결과가 불완전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교양 또는 전공수업에 따라 또는 단계별 전공수업에 따라 실제 교육 환경에 맞게 질문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최근 챗GPT4를 활용한 작문의 경우 표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Chomsky *et al.* (2023)은 뉴욕 타임스 기고문에서 “AI에 대해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에 접근해 규칙성, 문자열 등을 통해 문장을 생성하는 첨단기술 표절 시스템(high-tech plagiarism system)”으로 평가절하 하고 있다. 이들 학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글쓰기 영역에서는 AI로 인해 표절하기가 더 쉬워졌으며, 궁극적으로 챗GPT4가 언어, 인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비판한다. 현재 OpenAI사가 공개한 챗GPT4는 베타 단계이며 곧 챗GPT4에 사용된 기술을 탑재한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될 예정이다. 물론 언급한 챗GPT4가 가진 여러 윤리적, 도덕적 문제 점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산업 및 사회 구조, 그리고 교육 체계가 구성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를 통해 일부 확인해봤듯이, 챗GPT4는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에서 교수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전반적인 정보의 검색과 데이터 처리 속도 등에서 유용하기 때문에 미래 교육현장에서는 챗GPT4와의 문답 방법에 보다 의

숙해질 필요가 있다. 챗GPT4는 단편적인 질문에는 적절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며, 질문이 잘못되거나 일관적이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질문들을 구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제 2외국어 교육에서 목표어의 언어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챗GPT4는 관련 정보와 광범위한 예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는 디지털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로 구성된 기존의 교실수업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챗GPT4가 생성하는 지식에 대한 오류 감별과 정보의 정확성 및 적정성 판단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교수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수자, 학습자, 그리고 챗GPT4의 상호보완적 교수·학습 과정을 구성하여 제 2외국어 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 교육에서 챗GPT4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가정적 사례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챗GPT4의 활용을 통해 스페인어의 주요 구문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유용한 지식을 생성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정보의 정확성과 데이터의 적정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챗GPT4를 적용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만족도와 기존의 교실수업과 비교하여 챗GPT4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Arregi, Karlos(2003), “Clitic Left Dislocation is Contrastive Topicaliz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No. 9, pp. 31-44.
- Atkinson, Dwight(2011), *Altern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UK: Routledge.
- Bybee, Joan(2010), *Language, usage, and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ji, Ali(2023). “A Categorical Archive of ChatGPT Failures”, ArXiv Preprint ArXiv:2302.03494.

- Brown, Malcolm, Mark McCormack, Jamie Reeves, D. Christopher Brooks and Susan Grajek(2020), *EDUCAUSE Horizon Report*, Teaching and Learning Edition. Louisville, CO: EDUCAUSE.
- Casielles-Suarez, Eugenia(2004), *The Syntax-Information Structure Interface*, London: Routledge.
- Chomsky, Noam(1962), “Explanatory models in linguistics,” in E. Nagel, P. Suppes, & A. Tarski (eds.), *Logic, method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528-550.
- Chomsky, Noam, Ian Roberts and Jeffrey Watumull(2023), “The False Promise of ChatGPT”, *New York Times* (March 8, 2023), <https://www.nytimes.com/2023/03/08/opinion/noam-chomsky-chatgpt-ai.html>.
- Corr, Alice(2016), “Wide-focus subject-verb inversion in Ibero-Romance: A locative account”,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Vol. 1, No. 11, pp. 1-33.
- Cotton, Debby R. E., Peter A. Cotton and J. Reuben Shipway(2023), “Chatting and cheating: Ensuring academic integrity in the era of ChatGPT”, *Innovations in Education and Teaching International*, DOI: 10.1080/14703297.2023.2190148.
- van Craenenbroeck, Jeroen and Tanja Temmerman(2018), *The Oxford Handbook of Ellip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browska, Ewa and Dagmar Divjak(2015),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Berlin, Germany: de Gruyter Mouton.
- Depiante, Marcela(2000), *The Syntax of Deep and Surface Anaphora: A Study of Null Complement Anaphora and Stripping/Bare Argument Ellipsi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Eguren, Luis(2010), “Contrastive focus and nominal ellipsis in Spanish”, *Lingua*, Vol. 120, No. 2, pp. 435-457.
- Ellis, Nick C., Matthew Brook O’Donnell and Ute Römer(2013). “Usage-Based Language: Investigating the Latent Structures That Underpin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No. 63, pp. 25-51.
- Everett, Daniel(2023), “Exclusive: Linguist says ChatGPT has invalidated Chomsky’s ‘innate principles of language’”, *Tehran Times* (March 28, 2023). <https://www.tehrantimes.com/news/483187/Exclusive-Linguist-says-ChatGPT-has-invalidated-Chomsky-s-innate>.

- Fernández-Soriano, Olga(1993), “Sobre el orden de palabras en español”, *Cuadernos de Filología Hispánica*, No. 11, pp. 113-151.
- Guasti, Maria Teresa(2002), *Language Acquisition: The Growth of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2009), “Universal grammar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 in Foster-Cohen, S. (eds), *Language Acquisition*, pp. 87-108, Palgrave Advances in Linguistics. Palgrave Macmillan, London.
- Holmes, Wayne, Maya Bialik and Charles Fadel(2019),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Promise and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UK: The Open University.
- Hualde José Ignacio, Antxon Olarrea and Erin O’Rourke(2012), *The Handbook of Hispanic Linguistics*, Hoboken: John Wiley & Sons.
- Huang, James C-T(1984), “On the Distribution and Reference of Empty Pronouns”, *Linguistic Inquiry*, Vol. 15, No. 4, pp. 531-574.
- Huang, Weijiao, Khe Foon Hew and Luke K. Fryer(2022), “Chatbots for language learning—Are they really useful? A systematic review of chatbot-supported language learning”,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Vol. 38, No. 1, pp. 237-257.
- Jaeggli, Osvaldo and Ken Safir(1989), *The Null Subject Parameter*, Dordrecht: Kluwer.
- Kohnke, Lucas(2022), “A pedagogical chatbot: A supplemental language learning tool”, *RELC Journal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177/00336882211067054>
- Kulkarni, Ajay(2019), *AI in Education: Where is It Now and What is the Future*, Lexalytics.
- Lemke, Cheryl(2013), *Intelligent adaptive learning: An essential element of 21st century teaching and learning*, Dreambox Learning Inc.
- Leonetti, Manuel(2017), “Basic constituent orders”, in Stark, E. and A. Dufter (eds.), *Manual of Romance morphosyntax and syntax*, pp. 885-930. Berlin: De Gruyter.
- Lobeck, Anne(2006), “Ellipsis in DP”, in Martin Everaert, Henk van Riemsdijk, Rob Goedemans and Bart Hollebrandse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yntax*, pp. 145-173. Oxford: Blackwell.
- López, Luis(2009), *A Derivational Syntax for Information Structure*, Oxford: Oxford

- University Press.
- Olarrea, Antxon(2012), “Word order and information structure”, in José Ignacio Hualde, Antxon Olarrea, and Erin O’Rourke (eds.), *The handbook of Hispanic linguistics*, pp. 603-628. Hoboken: John Wiley & Sons.
- Park, So-Young(2016), “Arguments for NP-ellipsis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No. 41, pp. 289-311.
- \_\_\_\_\_(2021), “NP-ellipsis and numeral classifiers in Korean”, *Linguistics*, Vol. 59, No. 3, pp. 635-681.
- Perpiñán, Silvia(2018), “On Convergence, Ongoing Language Change, and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Direct Object Expression in Catalan-Spanish Bilingualism”, *Languages*, Vol. 3, No. 2, p. 14.
- Pugliese, Lou(2016), “Adaptive Learning Systems: Surviving the Storm”, *EDUCAUSE Review*, October 17, 2016.
- Rizzi Luigi(1982), *Issues in Italian Syntax*, Dordrecht: Foris.
- Saab, Andrés(2008), *Hacia una teoría de la identidad parcial en la ellipsi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uenos Aires.
- \_\_\_\_\_(2019), “Nominal ellipses”, in Tanja Temmerman and Jeroen van Craenenbroeck (eds.), *The Oxford Handbook of Ellipsis*, pp. 526-56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ito, Mamoru(2007), “Notes on East Asian Argument Ellipsis”, *Language Research*, Vol. 43, No. 2, pp. 203-227.
- Villalba, Xavier(2011), “A quantitative comparative study of right-dislocation in Catalan and Spanish”, *Journal of Pragmatics*, No. 43, pp. 1946-1961.
- White, Lydia(2003),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agona, Karen(2002), *The syntax of Span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ubizarreta, Maria Luisa(1998), *Prosody, Focus and Word Order*, Cambridge, MA: MIT Press.

## 정원석

경희대학교  
alex-7554@hotmail.com

논문투고일: 2023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23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22일

# The applicability of ChatGPT in Spanish language education

**Wonsuk, Jung**

KyungHee University

Jung, Wonsuk(2023), "The applicability of ChatGPT in Spanish language education", *Revista Asia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4(2), 67-98.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AI-based language learning in the field of language education. However, despite the advancement of related technologies, practical measures on how to apply AI to actual classes are still not established, and the effectiveness is not sufficiently verified.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application of AI such as ChatGPT in learning Spanish as a second language in Korea. Specifically, I present several hypothetical situations for learning syntactic structures of Spanish through ChatGPT and critically examine the answers generated by ChatGPT. In addition, I discuss the advantages, disadvantages, as well as limitations of using ChatGPT, and suggest that ChatGPT can be used as a supplementary tool for learning syntactic structures of Spanish to complement traditional classroom instruction that may not be feasible in many situations. This means that in a digital classroom using ChatGPT, appropriate intervention by the instructor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generated by ChatGPT and verifying the reliability of the data.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ChatGPT, Accuracy of information, Data Reliability, Spanish Teaching